

트와이스표 레트로... “들으면 흥얼거리실걸요” 건나블리 컴백에 ‘슈돌’ 활짝 웃었다

3년만에 정규 2집으로 컴백 타이틀곡 ‘아이 캔트 스톱 미’ 1980년대 복고풍 느낌 물씬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파”

최근 가요계는 확실히 레트로가 화두다.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유로디스코풍 ‘웬 위 디스코’(When We Disco)를 히트시킨 데 이어 JYP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도 레트로 감성이 가득 담긴 노래로 돌아온다.

트와이스가 26일 발표한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 타이틀곡 ‘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는 뮤직비디오 티저에서부터 198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긴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복고풍 노란색 의상을 맞춰 입을 멤버들이 강력한 신스 사운드에 맞춰 현란한 춤 동작을 선보인다.

트와이스 다현은 이날 앨범 발매에 앞서 소속사를 통해 전한 일문일답에서 “악기들이 강한 색채를 뽐내내는 곡이자 ‘레트로 장인’ JYP의 강점이 확실하게 드러난 노래”라며 “한 번만 들어도 흥얼거리게 되실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효는 “뮤직비



26일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으로 컴백한 트와이스.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오에서도 곡이 가진 레트로 감성을 화려하고 다채롭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아이즈 와이드 오픈’은 트와이스가 2017년 10월 발매한 정규 1집 ‘트와이스타그램’(Twicetagram) 이후 약 3년 만의 정규앨범이다. 나연은 “오랜만의 정규 앨범이다 보니 설레는 마음이 크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성장한 트와이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새 앨범 콘셉트를 예고하면서 슈

트 의상으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총 13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영국의 팝 디바 듀아 리파와 JYP 수장 박진영, 인기 싱어송라이터 헤이즈 등 참여진이 화려한 것으로도 주목 받았다. 미나와 지효는 “듣는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희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모았다.

멤버들의 단독 작사곡이 다수 수록된 것도 눈길을 끈다. ‘업 노 모

이’는 지효, ‘두 왓 위 라이크’는 사나, ‘브링 잇 백’과 ‘퀸’은 다현, ‘헨 들 잇’은 채영, ‘디펜드 온 유’는 나연이 노랫말을 썼다.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던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트와이스’가 많이 성장했구나”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 앨범을 내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가수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트와이스의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지효).

시청률 11.3%... 전주보다 ↑

9개월 만에 복귀한 축구선수 박주호와 그의 자녀들 덕분에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활짝 웃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5분 방송한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률은 9.7%~11.3%를 기록, 전주보다 소폭 올랐다.

전날 방송에서는 셋째 진우와 함께 돌아온 ‘전나블리’(진우+건우+나은) 가족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9개월 만에 돌아온 전나블리는 변함없는 사랑스러움으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또 나은이와 건우를 반씩 닮은 진우의 등장이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아기들이 아기를 귀여워하는 모습이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시청률뿐만 아니라 온라인 클립 영상에서도 독보적인 반응을 끌어들였다. 박주호 가족 관련 영상은 공개 직후 계속해서 네이버TV 인기 동영상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요 예능 시청률 1위는



박주호 가족. KBS 제공

SBS TV ‘미운 우리 새끼’가 가져갔다. 전날 시청률은 12.6%~13.2%~13.1%였다.

전날 ‘미우새’에서는 빙상여제 이상화가 스페셜 MC로 출연해 강남과의 알콩달콩한 신혼을 공개했다.

MBC TV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는 4.1%~4.6%, ‘구해줘 홈즈’는 4.0%~5.1%, JTBC ‘몽처야 잔다’는 5.78%(이하 유료가구), ‘1호가 될 순 없어’는 4.121%의 시청률을 보였다.

블랙핑크 정규 1집 120만장 팔렸다 K팝 걸그룹 사상 첫 ‘밀리언셀러’

국내 87만, 미국·유럽 32만장

블랙핑크가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12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K팝 걸그룹 사상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탄생시켰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 ‘디 앨범’은 26일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총 120만9543장이 판매됐다. 국내에서는 87만1355장, 미국과 유럽에서는 31만9300장이 팔렸고 한정판으로 출시된 LP 1만 8888장도 일찌감치 품절됐다.

기존에 공식 집계된 한국 걸그룹 앨범 판매량 최고기록은 1세대 걸그룹 S.E.S의 76만장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발매된 ‘디 앨범’은 블랙핑크가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한 정규앨범이다. 선주문량만 100만장을 돌파했으며, 발매 하루 만에 약 59만장이 팔려 국내 걸그룹 초동(발매 첫 주 판매량) 기록을 단숨에 경신한 바 있다.

팬덤의 세는 보통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 강하다는 게 가요계 속설이지만, 글로벌 스타로 급성장한 블랙핑크는 국내외에서 모두 탄탄한 팬덤을 입증하며 이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줬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는 발매 첫 주 2위로 데뷔하며 전 세계 걸그룹을 통틀어 12



블랙핑크.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년 만에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미국 그룹 대니티 케인(Danity Kane)이 2008년 4월 ‘웰컴 투 더 돌하우스’ 앨범으로 1위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순위였다.

그뿐만 아니라 발매 2주 차에는 6

위, 이번 주 업데이트될 3주 차 차트에서는 10위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빌보드 200 톱10에 머물렀다. 3주 연속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톱10 진입에 성공한 K팝 걸그룹은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지속·이두희 커플 31일 결혼... “비공개 진행”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방송인 지속과 프로그래머 겸 사업가 이두희가 오는 31일 결혼식을 올린다.

지속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26일 “지속 씨는 오는 31일 모처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코로나19로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를 했으며, 식은 시국을 감안해 양가 가족분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지속 씨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속·이두희 커플.

지속·이두희 커플은 MBC TV 연예 리얼리티 예능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출연하며 공개 연애를 해왔다.

김준수, 댄스곡으로 컴백 내달 10일 새 미니앨범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해온 김준수(XIA)가 새 미니앨범을 내고 가수로 돌아온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준수는 다음달 10일 오후 6시 두 번째 미니앨범 ‘핏앳’(Fit

A Pat)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댄스 타이틀곡 ‘핏앳’을 포함해 네 트랙이 담겼다. 리드미컬한 하우스 댄스 곡으로, 김준수의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를 함께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듣기 감성을 파고드는 두 곡의 발라드와 지난해 11월 첫눈 오는 날 기습적으로 공개돼 팬들의 성원을 얻은 ‘눈이 오는 날에는’도 담겼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Contains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able with 2 columns: 운세 (Fortune) and 27일 (October 27th). Contains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